

## 영등포구 보육시설의 급식 및 영양교육실태조사

이경희 · 박도영<sup>1</sup> · 이인영<sup>1</sup> · 홍주영<sup>2</sup> · 최병찬<sup>1</sup> · 배상수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 영등포보건소<sup>1</sup> · B·H 영양연구소<sup>2</sup>

The Survey on the Nutrition Educ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s system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Yongdungpo

Lee, Kyung Hee · Park, Do Young · Lee, In Young ·  
Hong, Ju Young · Choi, Byoung Chan · Bae, Sang Soo

*Health Service Research Center Hallym University*

*Yongdungpo Community Health Center<sup>1</sup>*

*B · H Nutritional Research Institute<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ood service managements system and nutrition educ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Yongdungpo, Seoul.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6 pub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and 34 private ones. A majority of the teachers were women over 40 with at least bachelor's degree. Other than the fact that food service provides food to the children, it contributed in providing the essential nutrients to the children, as well as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learn table manners. A normal food service would provide one set of lunch and two sets of snacks, which would be provided by the institute itself. In most cases, the director or teachers planned the menus instead of dietitians. Journals, cookbooks and other information put out by mass communication, such as TV and newspapers, were used as reference to those menus. The factors considered in planning the menus were mainly nutritional balance and the children's food preference. The difficulties in meal management were about the budget and nutritional menu planning. Fifty five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did nutrition education, and they focused mainly on the table manners and hygiene education but once a year. The difficulties and complaints in execution nutrition education at the institutes were lack of nutritional knowledge, personal shortage, and excessive work. The institutes were urgently requesting for menu provisions from local Public Health Clinics. As a recommendat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ood 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related subjects should be more enforced into the nursery teacher training curriculum.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to teachers, and as

a link, the need to develop a manual for nutrition education has become urgent.

KEY WORDS :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food service managements system, nutrition education

## 서 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화로 변화시켰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전유물인 자녀양육문제를 사회가 같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증대를 낳게 되었다. 현재 민간, 구립, 사립시설 유아교육기관은 1998년 17,605개소로 집계되어, 1990년 말에 비해 90%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아동은 전체 영유아의 약 50%를 차지하는 556,957명으로 증가된 상태이다<sup>1)</sup>.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은 반일제에서 연장제 또는 종일제, 나아가 24시간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일일 1회에서 점심제공과 더불어 간식 2회로 제공되고 있다<sup>2)</sup>. 이렇듯 유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보육기관은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자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육기관에서의 급식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3)</sup>.

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 때의 성장, 발달결과는 일생동안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sup>4)</sup>. 급식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sup>5)</sup>에 의하면, 균형잡힌 식단을 통해 급식 유아가 비급식 유아보다 신체성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기관에서의 급식여부가 유아기 성장발육에 있어 영양상태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아기에 건강한 심신의 발달은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의 맛과 함께 그 음식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가이다.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시간은 기본 생활습관 지도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간이므로 교사는 유아의 영양필요량을 고려하여 급식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

의 급식은 많은 대상에게 일정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급식과 동일하지만, 단순한 영양급식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식사를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며, 신체형성적 발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6)</sup>.

대도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박성미(1996)의 연구<sup>10)</sup>에 의하면, 조사대상 보육시설에서는 식단작성이 영양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급식관리와 조리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영양사를 채용하거나, 중앙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급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은 영양과 건강관련 내용을 학습영역별로 연계시킨 수업시간과 간식 및 점심 급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는 교사들의 전문 지식 결여와 함께 유아교육 과정에서 영양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교사들의 급·간식 참여도와 영양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70~80%가 간식을 계획하고 간식지도도를 하지만, 영양관련 과목의 이수율이 적기 때문에 영양관리를 위해 교사자신을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sup>8)</sup>. 보육시설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영유아 영양 및 식사지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과정이나 교재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등포지역 보육시설의 급식, 간식의 운영형태를 조사해 급식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영양교육실시 여부를 조사하며, 보육시설에서 요구하

고 있는 영양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업계획에 기초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방법

영동포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 29곳과 민간 어린이집 83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작성은 원장 및 급식을 관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는 2000년 3월 6일에 설문을 요청하는 공문과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4월 30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2. 조사 내용

보육시설 급식 실태조사보고<sup>123)</sup> 등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급·간식의 조리형태, 식사장소, 배식형태, 급식비인지도, 식단작성자, 식단의 참고자료, 식단작성시 고려하는 점, 조리종사자수, 급식시 어려운 점과 같은 급식현황을 묻는 설문 문항과 영양교육 실시여부, 교육횟수, 교육내용을 조사하였으며, 보건소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영양사업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3. 통계처리

본 조사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빈도를 산출하였고, X<sup>2</sup>-test로 검증하였으며,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간의 급식비 인지정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 보육시설 일반사항과 아동수

총 112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60개로 회수율은 54%이었으며, 29곳의 구립 보육시설 중 26곳(89.7%)이, 83개 민간 보육시설 중 34곳(40.9%)이 회수되었다.

응답대상자의 93.3%가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40~4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65%를 차지하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 보육시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항 목	응답자의 특성	n(%)
성 별	남	4( 6.7)
	여	56(93.3)
연 령	25~29세	2( 3.3)
	30~34세	10(16.7)
	35~39세	8(13.3)
	40~44세	22(36.7)
	45세 이상	18(30.0)
학 령	고졸	7(11.7)
	전문대졸	14(23.3)
	대졸	32(53.3)
	대학원졸	7(11.7)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연령별로 일일 보육시설이용 평균 아동수는 표 2와 같다. 구립 보육시설이 민간 보육시설보다 연령이 낮은 아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호하고 있었고(p=0.005), 총 아동수를 연령별로 보면, 취학전 아

표 2.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연령별 평균 아동수 (단위 : 명)

연령	0~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총인원
구립	6±5 <sup>1)</sup>	10±7.9	10±9	11±8	11±8	8±10	6±7	62±29
민간	4±4	6.8±5.8	8±8	6.7±9	6±10	5±9	3±6	40±28
p	.06	.08	.399	.058	.059	.227	.120	.006

주 : <sup>1)</sup>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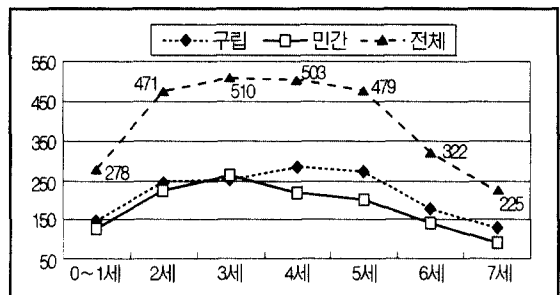


그림 1. 구립·민간 보육시설 연령별 총 아동의 분포

동인 6~7세에 비해 3~5세 아동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보육시설이 탁아성격을 띠고 있는 경향이 짙고, 연령이 낮은 아동을 주로 보호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설문지 회수율이 높았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

## 2. 보육시설에서의 급·간식실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급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양이 고른 식사로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으며, "급식을 통해 바른 식사예절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8.3%였고, "편식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다"가 10%였다(표 3).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은 모두 중식 1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간식은 1회 실시가 83%, 2회 실시가 86.7%, 3회 실시가 5%로 간식을 2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급식유형은 유아원에서 밥, 반찬을 모두 조리하고 있는 곳이 96.7%였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반찬을 도시락으로 싸오게 하는 경우는 각각 1.7%였다. 간식은 보육시설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88.3%로 가장 많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3%, 각자 준비하는 경우는 8.4%였다(표 4).

표 3 조사응답자들이 급식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구분	n(%)
급식은 영양이 고른 식사로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37(61.7)
급식을 통해 바른 식사 예절을 배운다	17(28.3)
편식의 식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다	6(10.0)

표 4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급·간식의 조리 형태

구분	n(%)
급식횟수 1회 실시	60(100)
간식횟수 1회	5( 8.3)
2회	52(86.7)
3회	3( 5.0)
급식형태 유아원에서 밥, 반찬 모두 조리	58(96.7)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1( 1.7)
밥은 유치원에서 반찬은 각자 준비	1( 1.7)
간식형태 유아원에서 모두 준비(조리)하여	53(88.3)
외부의 전문기관에 주문 위탁하여	2( 3.3)
간식은 각자	5( 8.4)

## 3. 급식비의 인지정도

보육사업지침<sup>20)</sup>에 의한 보육시설 아동의 하루급식비는 1,745원으로,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구립보육시설의 26.9%에 해당되는 7개곳 뿐이었다. 하루 급식비인 1,745원에 대해 1,000~2,400원 범위를 주어 이에 응답한 경우를 비슷하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곳은 구립 보육시설의 8곳(30.8%)과 민간 보육시설의 34곳중 6곳(17.6%)이었다. 급식비를 모르거나 엉뚱하게 답한 경우가 구립은 42.3%, 민간은 82.3%로 상당수의 보육시설에서 급식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의 경우,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급식비의 인지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구청의 지도 점검으로 예산을 계산해 본 경험이 있는 것 때문으로 추측된다(표 5).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이혜숙(1999)의 연구<sup>21)</sup>에서 직장,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1일 급·간식비를 조사하였을 때, 평균 급·간식비는 1,916원으로 복지부에서 책정한 급식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편차가 크고, 급식비보다 간식비를 높게 알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아동 1인당 1일 급식비 인지여부 (단위 : n, %)

	구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n	(%)	n	(%)
인지 정확하게 인지	7	(26.9)	-	-
비슷하게 인지	8	(30.8)	6	(17.6)
소 계	15	(57.7)	6	(17.6)
모른다	5	(19.2)	15	(44.1)
무응답	6	(23.1)	13	(38.2)
총 계	26	(100)	34	(100)
유의성	p = 0.006			

## 4. 보육시설에서의 식단 작성

보육시설의 식단작성은 원장이 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양사가 15%, 교사가 10%, 조리원이 하는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식단작성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원아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급식제공에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에서 영양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식단을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www.children.metro.seoul.kr) 한국보육시설연합회(www.educare.or.kr) 등 여러 internet site에서 보육시설식단을 무료로 제공하고는 있으나 인터넷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단작성시 이용하는 주요 정보원은 유아전문잡지와 관련 책자(90%)가 대부분이었다. 조리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대부분 1명으로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작성시 고려하는 사항은 영양의 균형이 73.3%,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23.3%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과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18)20)</sup>. 박성미 등(1996)의

표 6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급식준비 현황

구 분		n(%)
식단작성자	원장	30(50.0)
	영양사	9(15.0)
	유치원(보육)교사	6(10.0)
	조리원	5( 8.3)
	기타	10(16.7)
식단작성 참고자료	책자(월간지나 잡지)	54(90.0)
	TV, 신문 등 방송 매체	2( 3.3)
	주변의 의견	1( 1.7)
식단작성시 고려하는 요소	기타	3( 5.0)
	영양의 균형	44(73.3)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도(맛)	14(23.3)
조리종사자수 (명)	조리비용	2( 3.3)
	1	46(76.7)
	2	13(21.7)
급식시 가장 어려운 점	3	1( 1.7)
	문제없음	11(18.3)
	예산관리	22(36.7)
	식단작성	15(25.0)
	조리장 협소	10(16.7)
남은 음식 처리	2( 3.4)	

연구에서는 영양소 필요량, 원아들의 기호도, 원아들의 소화율, 급식비용, 조리시간, 급식시설여건 순으로 식단 작성시 고려하였다<sup>18)</sup>.

간식을 준비하는 조리종사원은 1명(76.7%)이 가장 많았고, 2명(21.7%), 3명(1.7)순이 였다. 급식관리의 어려운 점은 예산관리(36.7%), 식단작성(25%), 조리장 협소(16.7%), 남은 음식처리(3.4%) 순으로 지적되었다(표 6).

### 5. 보육시설에서의 배식형태

배식량은 일정량을 주고 다 먹도록 하는 경우가 90%, 정해놓은 양 없이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만큼 주는 경우가 10%이었다. 이미 발표된 연구<sup>18)</sup>에서도 일정량을 주는 경우가 51.6%, 먹고 싶은 양을 유아가 결정하여 먹게 하는 경우가 39.8%로 대부분 교사들이 일정한 양으로 배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배식시 1인 1회분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고 주로 경험에 의지하며, 잔식을 줄이기 위해 소량 배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17)</sup>.

식사장소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76.7%, 식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20%, 기타가 3.4%였다. 박성미 등(1996)의 연구<sup>18)</sup>에서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경우 식사환경의 위생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음식의 운반이 쉽지 않고, 운반과정 중 음식이 식거나, 쏟아질 염려가 있으며 위생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육시설의 식당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배식형태

구 분		n(%)
배식 형태	유아원에서 일정량을 주고 다 먹도록 한다	54(90.0)
	정해놓은 양 없이 아이들이 먹고싶어하는 만큼 준다	6(10.0)
	교사가 보고 원아의 나이, 체격 등에 따라 다르게 준다	-
식사 장소	교 실	46(76.7)
	식 당	12(20.0)
	기 타	2( 3.4)

## 6. 보육시설에서의 영양교육

보육시설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5%였으나, 교육내용이 식사예절에 국한되어 있고, 교육 실시횟수도 주기적인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단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해숙(1999)의 연구<sup>13)</sup>에서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65%이상이 년 1회 정도의 편식교정이나 식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보육시설의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영양교육시 어려운 점으로는 영양지식의 부족이 25.0%, 인력부족이 23.3%, 과다업무가 15.0%였다. 보건복지부(1998)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관리 시범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식생활 문제점은 기존의 교사들이 해오고 있는 식사예절보다는 식품에 대한 편식문제와 불규칙적인 식사, 식사의 양조절 문제 등으로 음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바른 식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17)</sup>. 이에 반해 교사들이 아동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식사태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양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영양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영미 등(1999)의 보고<sup>2)</sup>에서는 올바른 영양교육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급·간식을 실시할 때, 아동들의 식행동 변화에 있어 급식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식행동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린 시절부터 종일반 형태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통해 식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미숙하게 식행동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유아들을 위해 단순히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시기 발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빈곤층의 유아를 위한 교육·건강·사회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교육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아를 위한 영양프로그램

인 Head Start 에서는 영양이 유아의 건강상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1993년 발표된 '미국 2000 교육 전략'의 유아교육관련 항목 중에는 모든 유아가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영양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기초하여 미국은 유아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급식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아들을 위한 영양교육과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8 조사대상 보육시설 교사가 아동에게 실시하는 영양교육 현황

	구 분	n(%)
영양교육	실시한다	33(55.0)
	- 무응답	17(51.5)
	- 1회/년	5(15.2)
	- 2회/년	10(30.3)
	- 4회/년	1( 3.0)
교육내용 <sup>19)</sup>	실시하지 않는다	27(45.0)
	식사예절	30(50.0)
	위생교육	21(35.0)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	18(30.0)
	기타	1( 1.9)
영양교육시 어려운 점 <sup>20)</sup>	영양지식부족	15(25.0)
	인력부족	14(23.3)
	과다업무	9(15.0)
	기타	2( 3.4)

주 : <sup>19)</sup> 중복응답

## 7. 보건소에서의 영양사업

보육시설에서 보건소에 요청하고 싶은 영양사업 2가지를 질문한 결과, 식단제공사업이 81.7%, 아이들에 대한 영양교육이 36.7%, 급식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이 33.3%,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18.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이 16.7%로 나타나 식단제공사업을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1998)의 조사결과<sup>15)</sup>에 의하면 교사들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은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63.6%)이 첫 번째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양, 건강, 안전을 위한 배려(53.3%)라고 응답하였고,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9. 보건소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영양사업

구분	n(%)
식단 제공 사업	49(81.7)
아이들에 대한 영양교육	22(36.7)
급식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20(33.3)
유아원 교사들에게 영양교육	11(18.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10(16.7)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급식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업 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영등포지역 보육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구립 어린이집 26곳과 민간의 어린이집 34곳의 급식, 간식의 운영형태를 분석하고, 영양교육 실시여부와 보건소로부터 지원 받기를 원하는 영양 서비스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등포 관내 보육시설 112개 중 수거된 설문지는 60개로 회수율은 54%이었다. 구립과 민간 보육시설별로는 구립이 89.7%(26곳), 민간이 40.9%(34곳)로 구립 보육시설의 설문지 회수율이 높았다. 조사대상 93.3%가 여성이었고, 40~44세가 36.7%, 45세 이상이 30%였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65%였다. 보육시설에서의 하루 평균 이용 아동수는 구립이 62명, 민간이 40명으로 구립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3~5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보육시설에서 급식의 가장 큰 의미로는, '영양이 고른 식사로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가 대부분(61.7%)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에절을

배운다' 였다. 급식형태는 중식 1회(100%)와 간식 2회의 형태(86.7%)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급·간식모두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의 아동 하루 급식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60곳중 7곳(11.7%) 뿐이었으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알고 있는 응답까지 포함하여도 겨우 21곳(39%)이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하루 급식비가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식단작성은 영양사(15%)에 의해 작성되기보다 비전문가인 원장(50%), 유치원교사(10%), 조리원(8.3%)에 의해 작성되어지고 있으며, 식단 작성에 참고자료로 아동용 월간지와 같은 책자가 가장 많았고, TV, 신문 방송매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식단 작성시 고려하는 것은 영양의 균형(73.3%),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23.3%)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에서 급·간식을 준비하는 조리종사원은 1명이 가장 많았고, 급식관리에서 어려운 점은 급식관리의 전문적인 영양지식을 필요로 하는 예산관리와 식단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양교육은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55%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주로 식사예절과 위생교육에 국한되어 있었고, 실시횟수도 년 1~2회 정도로 매우 단편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양지식 부족과 인력부족, 과다업무 등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지원을 식단체공사업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양교육, 급식위생교육, 교사들을 위한 영양교육, 학부모대상 영양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운영은 아직까지 영세하고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관리는 급식담당 교사 개인의 노력과 보육시설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급식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육시설아동들은 고르지 못한 영양관리와 위생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쉽고, 성장발육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급식과 영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예산관리방법을 알고 있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양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가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면 통합적인 급식운영 방법과 급식담당교사들에게 식단작성 방법과 예산관리법 등을 배울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들에게 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영양보수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교사들이 실제로 영양지도를 위한 노력은 있지만 절대적인 지식부족으로 전달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식사예절에 대한 교육만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중에 건강 및 영양관련 교과과정을 더욱 보완하고, 기존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사가 아동들에게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교육자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영양교육 지침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교육자료와 매체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통계청, 통계연보, 2000.
2. 이영미, 이기완. 유치원교사들의 영양지식 및 간식 급식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1(3):423-432, 1996.
3. 배소연, 정미라. 유치원 간식 및 점심급식시간의 교육적 운영, 아동학회지 17(1):117-272, 1996.
4. 이영미.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영양관리 현황, 국민영양 9:11-17, 1999.
5. 이영미. 미취학 아동의 영양섭취 실태와 식생활 행동, 국민영양 6:15-24, 1999.
6. 이영미. 미취학 아동의 영양문제와 식사관리, 국민영양 7·8:23-30, 1999.
7. 김상우. 영·유아 영양관리, 소아과 40(1):7-12, 1997.
8. 이집로, 신은희, 김애옥. 유치원 급식과 비급식에 따른 신체성장에 관한 연구- 전남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15권 : 253-267, 1998.
9. 구재옥.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의 방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새천년과 건강한 영유아-:42-46, 1999.
10. 박성미, 박혜숙. 보육시설의 급식운영 및 원아들의 기호도 조사, 부산대학교 영유아 보육연구 제2집, 1996.
11. American School Food Service Association(ASFSA). 1989. Impact of Hunger and Malnutrition on Student Achievement.School Food Service Research Review 13(1, Spring):17-21
12. 배영미. 어린이집 교사의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13. 이혜숙. 어린이집 식단의 영양균형성 평가 및 식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영양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식품영양정보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14. 이영미, 정미라, 김정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섭식행동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7):69-81, 1999.
15. 보건복지부(대한영양사회),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관리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 1998.
16. 정미라, 이영미, 이기완. 유아교육기관의 간식공급 현황 및 영양평가, 대한 가정학회지 38(4):99-81, 2000.
17. 노정미. 원주지역 어린이집의 급식 식단관리 실태 조사, 원주전문대학학술논총 27:97-129, 1998.
18. 정은정, 남혜원, 엄영숙. 서울경기 일부지역의 소득 수준별 미취학 아동의 식생활 태도 및 영양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293-305, 1998.
19. 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유아건강교육, 양서원, 1999.
20. 이선주, 박어진, 박금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식품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9(1):35-45, 1999.
2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1997.